

우리은행, 오픈뱅킹 신규 가입 고객 경품 이벤트

우리은행이 3월 31일까지 '오픈뱅킹 등록하고 원하는 경품 받으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바일뱅킹인 우리WON뱅킹에서 오픈뱅킹 신규 등록 고객이 대상이다.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에어, 다이슨 에어랩 등 무제한 경품을 증정한다. 총 2회차로 진행하며 2월 오픈고객은 3월 9일, 3월 오픈고객은 4월 7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정욱 기자



비즈 포커스 | SK, LG와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 패배 후폭풍

SK이노베이션, 수조원 합의금 조율할까

리튬 배터리 10년간 美 수입 금지 조치아주 건설중인 공장 좌초 위기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투명 업계는 "SK, 합의 적극 나설 것" 전망

LG가 SK와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SK의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 미국 수입을 10년 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

'배터리 전쟁'으로 불리는 이번 소송전은 2019년 4월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내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같은해 9월 ITC에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불을 냈다.

약 2년에 걸친 소송전이 LG에너지솔

LG에너지·SK이노베이션 미국 '배터리 소송' 공방 일지

연도	일지
2019년	4월 29일 ▶ LG화학, 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9월 3일 ▶ SK이노베이션, ITC·연방법원에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9월 27일 ▶ LG화학, 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특허침해 맞소송 10월 3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중요 문서 제출 누락' 포렌식 명령
2020년	2월 14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스 예비 결정 4월 17일 ▶ ITC,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 후 재검토 결정 12월 10일 ▶ ITC, 최종 결정 2021년 2월 10일로 재연기 발표
2021년	2월 10일 ▶ ITC,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 부문) 최종 승소

루션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SK이노베이션의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약 3조 원을 투자해 연간 43만 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다. 수입금지명령이 풀리지 않는 이상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대해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켈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 분쟁 판정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도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SK배터리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만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

된 600여 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1건에 불과하고, 영업비밀 침해 건의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단 한건도 없다는 점에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합의라는 마지막 방법도 있다.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합의하면 수입금지는 없던 일이 된다. 양사는 실제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성과가 없었다. 합의금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수 조 원을, SK이노베이션은 수 천 억 원을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이 배상금 규모를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라도 지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예견한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단호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근기자 dionys@donga.com



"김태희, 신선한 봄의 감성" 세정 올리비아로렌 모델 김태희가 봄 시즌 화보를 통해 신선한 봄의 감성을 선보였다. '프레시 에어'를 콘셉트로 한 화보에서 김태희는 꽃무늬 패턴의 롱 원피스에 올해의 트렌드 색상의 노랑 가디건을 매치해 세련되면서도 안정감 있는 룩을 연출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1세정



"이제 신학기"... '포스트 설 마케팅' 나선 유통가 명절 후 소비 기대... '책가방·디지털 가전 할인'

설 연휴가 끝나면서 유통업계가 '포스트 설 마케팅'에 돌입했다.

명절 이후 세뱃돈, 설 보너스, 선물로 받은 상품권 등을 소비해 소비가 급증하는 트렌드를 겨냥했다.

마침 신학기가 임박해 자연스레 신학기 특수를 잡기 위한 할인전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롯데백화점은 3월 4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프레시 뉴 스타트'(사진) 신학기 행사를 진행한다. 노스페이스의 '키즈와이드 프로텍션 스쿨팩', 헤이즈의 '로얄채크 책가방 세트' 등을 할인 판매한다. 또 라이브 커머스 '100LIVE'를 통해 18, 19일 오후 6시 30분 각각 NBA와 잔스포츠의 인기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마트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홈오피스용 가구와 디지털 가전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신학기 대전'을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원격 수업 병행 가능성을 고려해 '데코라인 카운티 책상 세트' 등 홈오피스용 가구와 'LG그램17' 등 디지털 가전을 주력 상품으로 내놓은 게 특징이다. 이밖에도 홈플러스는 어린이 세뱃돈을 겨냥해 17일까지 베이블레이드와 겨울왕국 등 인기 완구 400여 종을 최대 70% 할인가에 선보인다.

명절을 치르며 지친 주부들을 겨냥한 행보도 눈에 띈다. 서울 압구정 갤러리아명품관은 21일까지 이스트 1층 팝업존에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의 '로만스터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발렌티노의 신규 컬렉션인 로만스터드의 가방, 신발, 액세서리를 판매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LGU+, 기업전용솔루션 'U+ SD-WAN' 서비스

LG유플러스는 정보기술(IT) 가상화 전문기업 VM웨어와 'U+ SD-WAN' 서비스를 출시했다. 소프트웨어로 품질을 실시간 관리하고, 클라우드 접속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전용솔루션이다. 기존 업무통신망을 바꿀 필요 없이 SD-WAN 플랫폼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다. 기업들은 기업전용회선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영상 회의나 클라우드 등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비즈니스용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중앙에서 기업 전용망을 사용하는 단말을 원격으로 자동 컨트롤하고, 유지보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쿠팡, 美 뉴욕증시 내달 상장... 들쭉이는 e커머스

12일 신고서 제출... 'CPNG'로 상장 상장 후 쿠팡 가치 30조~50조원 전망 중 알리바바 이후 외국기업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이 들쭉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트렌드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시대가 앞당겨진 가운데, 올해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전략적 제휴 등 시장이 대대적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략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쿠팡은 이르면 내달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 예정이다. 이 회사는 12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다. 클래스A 보통주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CPNG' 종목 코드로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창업자 김범석 쿠팡이사회 의장이 미국 상장 계획을 밝힌 지 10년 만이다. 쿠팡은 김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클래스B 주식에 대해 1주당 29배의 '차등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직원들에게 1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나눠주고, 2025년까지 5만 명을 추가 고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이용이 늘면서 실적을 개선한 것이 주요했다. 쿠팡이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의 총 매출은 약 13조 3000억 원으로, 2019년 7조1000억 원보다 2배가량 늘었다. 반면 순손실은 약 5257억 원으로, 2019년보다 1500억 원 가까이 줄



쿠팡이 이르면 3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 2011년 창업자 김범석 쿠팡이사회 의장이 미국 상장 계획을 밝힌 지 10년 만이다. 사진제공 1스프링동아 DB

었다. 새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상장 추진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에서 3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받아 물류센터 등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에 따른 누적 적자가 수 조원에 이르고 있다.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추가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기업가치 55조 원"

상장 후 쿠팡의 가치는 30조~5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쿠팡의 기업공개(IPO) 규모는 중국의 알리바바 이후 외국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며 쿠팡의 가치가 약 500억 달러(55조4000억 원)로 평가될 것이라고 봤다. 쿠팡은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더 공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만큼 아마존과 같이 서비스 영역을 빠르게 확장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미 '아마존 프라임'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 플레이'를 선보였고, '아마존 웹서비스(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쿠팡 클라우드샵' 등 상품권도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시장 진출도 이뤄질 전망이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서비스를 다른 나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현재 서울 외에 실리콘밸리, 시애틀, LA,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등에 오피스를 두고 있기도 하다.

쿠팡의 상장을 시작으로 올해 e커머스 시장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연이은 굵직한 이벤트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로 나왔다. 미국 이베이 본사는 최근 "한국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매각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몸값이 약 5조 원으로 예상돼 인수 후보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유통 대기업 등이 나설 경우 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e커머스 기업 아마존의 국내 진출도 가시화 된다. 아마존은 지난해 말 SK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11번가 이용자 등이 아마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11번가의 지분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김병근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게임도 삼성 TV로 즐기세요" 삼성, QLED TV 게임기능 강화

삼성전자는 2021년 QLED TV 신제품에 게임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AMD와 협업해 50인치부터 85인치에 이르는 '네오 QLED TV' 전 라인업에 업계 최초로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기능을 도입한다. 프리싱크는 콘솔(가정용게임기)이나 PC 등의 게임 콘텐츠가 TV로 전달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지연이나 화면 끊김, 화면 왜곡 등을 감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삼성전자가 도입한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는 프리싱크 기능에 명암비 최적화 기술인 HDR 기능을 추가해 더 선명하게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성일경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부사장은 "글로벌 TV 시장은 보는 TV에서 즐기는 TV의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며 "더 좋은 화질과 큰 화면으로 즐기는 게이밍 경험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며, 삼성이 TV 중심의 게이밍 경험을 주도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